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오늘은 가을 소풍을 다녀옵니다(10.6. 주일 오후). 주님 안에서 함께 쉽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님,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10/6)	다음 주(10/13)	10/20
기 도	주일오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	최수연 성도	하유미 성도
성경 봉독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이미정 성도
식사 준비		-	이윤경 순	이강진 순
정리		-	이강진 순	이윤경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40호 2019.10.6.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25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4장, 찬송가 68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29편		황	근	하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1장 12-18절		김	윤	기 목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16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박	철	호 서리집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 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기 도:

주 제: -

합심기도:

주기도문: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40주일

찬 송: 다 같이

본 문: 시 60:5-12

설 교: 누가 나를 인도할까

기 도 회: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40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협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 설교 노트: 약 1:12-18,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1.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2절a).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약 1:2). 시험은 종착지가 아니며 과정입니다.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는 신자의 종착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12절b; 계 2:10). 주님을 사랑하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12절c; 마 5:10-12; 출 20:6; 신 5:10; 7:9).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에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요 6:39,40).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3:16). 주님은 우리 안에 원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12절).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13절).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도 내시는 분입니다(고전 10:13).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렘 29:11-13; 벧후 3:9).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에게겐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겐 복을 주십니다.

3. 시험을 왜 받는가

그럼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14절; 창 3:6).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15절; 창 3:19). 세상 영광에 욕심을 내고 미혹되며,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창 11:4). 시험을 견디는 일은 믿음으로 자기 욕심을 참아내는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4.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16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며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낫 놓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침 흘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계 20:2,3).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며 진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17절).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말 3:6). 사탄은 멸망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요 10:10). 사탄은 미혹하여 사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18절). 주님의 “첫 열매”, 즉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18절; 계 14:4; 골 1:5,6).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창조하신 열매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마음을 움직여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바를 깨달아, 시험을 견디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